한 평 법당에 8만 유순 도솔천이…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② 전남 해남 도솔암(兜率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에는 저마다 뜻이 있다. 각자는 하나의 '뜻'으로 존재한다. 유정은 유정대로 무정은 무정대로, 수없이 많은 뜻으로 와있는 것이다. 산의 이름 하나, 암자의 이름 하나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그것만큼 뜻에서 시작하고 뜻으로 끝나는 것이 또 있을까. 같은 모습의 전각과 마당을 가진 것이 도량이지만 도량마다 뜻을 달리하여 서있고, 같은 모습의 초목과 산새들을 품은 것이 산이지만 그 역시 저마다 다른 뜻으로 서있는 것이다. 산의 이름은 저마다 다른 정기를 뜻하고, 암자의 이름은 그 이름마다 다른 불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 달마산 도솔암. '달마'와 '도솔',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곳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리라.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미얀마 출가와 수계의식

B4 책세상
용성평전

B5 문화
바라캇 서울 '찰나와 영원' 展

B6 학술
2500여 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